

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,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

김을규 기자 | 승인 2020.01.10 09:25



대구세관 선열공원참배앞줄 가운데 김재일대구본부세관장

[일요서울 | 대구 김을규 기자]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일 세관 간부들과 함께 대구 동구에 소재한 우리나라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하고, 독립유공자와 호국영령을 추모하였다.

이날 참배는 독립투사, 전몰장병 등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,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.

이 자리에서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“일본의 수출규제, 미-중 보호무역강화 등 대·내외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세관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지역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저작권자 ©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을규 기자